사회과학
발표논문 01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본질과 성경적 부합성에 관한 고찰

이형우 한남대 교수[1)]

국문초록

본 연구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그 성경적 기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본질을 고찰한 후,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중 어떤 정치이념이 성경에 더 부합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는 보편적 이성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바 정치 및 사회 구성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했던 개신교인들에 의하여 세워진 정치이념이며 제도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애초에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결국 민주주의는 '무엇이 옳은가(what is right)'에 관한 이념이다. 이러한 전통은 근대 이후 보수주의 정치이념으로 구체화 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이다. 반면, 진보주의는 인본주의적이고(루소), 반기독교적인(마르크스의 유물론) 철학에 근거하고 있으며, '무엇이 옳은가'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가 무엇을 갖는가(who gets what)'의 문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보수주의가 성경에 더 부합하는 정치이념임을 논증한다.

서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사태는 기독교에 대한 일반대중의 혐오감을 조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된 집단감염사례는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많은 사람이 출퇴근을 위하여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에는 집단감염사례가 단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다. 최소한의 거리두기도 하지 못한 채 출퇴근을 위해 최소 1시간씩 이용하는 지하철과 버스의 이용객들 사이에서 전혀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대부분이 현금이 아닌 전자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중교통시설이 역학조사[2)]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비상식적인 일임에 분명하다.

1)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hwlee@hnu.kr

2)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역학조사에는 자연과학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는다. 기술적 가능성과 비용도 문제이지만 역학조사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학조사는 감염자와의 대부분 감염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회 내 집단감염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 방역 당국은 교회를 폐쇄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인 교인들의 예배권을 침해한다. 일부 언론은 교회의 교회 내 집단감염을 보도하면서 입안에 소금물을 뿌리는 등의 행동을 부각시켜 교회를 미신에 빠진 미개인 집단 정도로 취급하게 한다.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다. 특정 정치집단과 그 지지자들은 인간의 본성과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 간 성행위를 신성시하고, 이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을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으로 낙인찍는다.

최근 한국교원대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2022년 교육과정 개편안에는 사회, 도덕, 보건, 기술·가정 등 많은 과목에 '성평등(gender equality),' '혐오,' '다양한 가족' 등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최대 추산 25%에 불과한 소수집단인 기독교인은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으로 몰려 대중으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될 것이 자명하다. 혐오를 금지하는 정책이 오히려 소수집단인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반민주적인 정치행태가 소위 진보주의라고 불리는 세력에 의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 반인륜적인 동성애가 미화되고, 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 교회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정당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교육해야 한다는 기독교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민주주의 이념, 즉,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본질을 고찰하며 그 역사적 기원을 논함으로써, 양 이념 중 어떤 이념이 성경의 사상과 원리에 더 부합하는지를 논증하고자 한다.

본론

1. 성경 속의 민주주의

1) 우리가 잘 모르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원

우리가 현재 당연시하며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흔히 서구 문명이라고 일컫는 문화적 토양에서 발전된 것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 서구 문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약 2천 년에 거쳐 발전된 기독교적 문화임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자신들이 너무나 당연

한 것으로 여기는 민주주의가 서구의 기독교 문화로 인해 시작되고 발전되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을 동물에 비유하여 '×독'으로 부르는 등 혐오와 비하가 만연한 것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우리의 가치 기반을 스스로 파헤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6천 년으로 볼 때, 민주주의는 가장 마지막 5퍼센트의 기간에 불과한 약 300여 년간만 지속되었다. 그 이전 5천7백 년 동안 모든 인류는 독재자를 신처럼 섬기며 살아왔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신교인에 의해 민주주의가 세워졌고, 미국과 같이 개신교를 중심종교로 받아들인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융성·발전하였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가 시민혁명으로 세워진 것이라 믿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1688년 개신교인이 사회의 주축 세력이 된 영국에서 비교적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영국 민주주의의 시작이 된 계기를 '명예'혁명이라고 부른다.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혁명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유혈사태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겠으나, 인류사에서 체제변혁이 있을 때마다 일어났던 대량 살상의 규모와 비교하면 무혈혁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을 들을 때, 프랑스에서 일어난 유혈 폭력혁명을 떠올린다.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하여 1789년 수많은 프랑스인이 흘린 피를 기억하라는 정도의 말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말은 프랑스혁명과 무관하다. 이는 워싱턴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말이다.

영국의 명예혁명이 프랑스혁명보다 100여 년이나 앞선 것은, 인류 역사에 민주주의라는 합리적인 정치제도가 처음 세워진 것이 시민혁명이 아닌 깨어 있는 개신교인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후에도 민주주의의 굵직한 발전들은 모두 기독교인의 자발적 개선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억압받는 세력이 혁명으로 체제를 전복하여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흔히 노예제도의 폐지는 민주주의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된다. 영국의 노예제도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노예제도가 비성경적임을 설파하기 시작한 후 이에 감화된 영국의 개신교 정치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윤영휘, 2014). 어떤 역사가는 이를 두고 '경제적 자살행위(econocide)'였다고 평가한다 (Seymour, 1977). 노예무역으로 인한 대규모의 경제적 이득을 포기해야만 가능했던 조치라는 의미이다.

미국 역시 노예해방은 성경적 원리에 기반한 정치를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람 에이브러햄 링컨에 의해 이루어졌다. 보수주의 정당인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 선출된 링컨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다 (전광, 2009). 같은 국민끼리의 내전을 각오하면서까지 노예제도의 폐지를 강행한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영국의 노예제 폐지가 경제적 자살행위(econocide)였다면, 미국의 노예제 폐지는 정치적 자살행위(politicocide)였다.

2) 성경적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반은 개신교의 핵심 교리와 매우 밀접하다. 칼뱅이 집대성한 정통 개신교의 신학에서는 모든 인간이 '전적 타락' 상태 (Total Depravity)에 빠져 있다고 선언한다. 이는 국내 최대규모의 보수 개신교단인 장로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TULIP의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전적 타락의 상태는 이후에 연결되는 나머지 4개의 교리의 논리적 전제가 된다.

민주주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권력을 가진 자는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다. 사실 이 믿음은 '전적 타락'의 논리적 귀결(corollary)이다.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면, 그 타락한 인간에게 절대권력을 주는 것은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과 같다.

왜 국가권력은 삼권분립이라는 이름으로 분리되어야 할까? 정부 조직을 제외하면 그 어떤 조직도 서로 다른 주체에게 동등한 정도의 의사 결정권을 나누어 주어서 일부러 대립하고 경쟁하게 만들지 않는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 민주주의의 정치체제는 최선의 상태를 이루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오히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 의하여 독재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태를 방어하는 데에 더 주안점을 둔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이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절대권력을 가지고 독재를 하면, 그 결과는 일반 대중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그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자유로운 상태에서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누가 왕이 될 것인지의 문제이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셨다 (마태복음 6:24). 우리가 세속 왕의 권력에 굴복하여 그를 섬겨야 할 때, 그 왕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금지할지라도 저항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실 때에도, 모세의 입을 통해 바로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것이었다 (출애굽기 3:18).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은 나 여호와요, 너 바로가 아니라는 독재자 애굽 왕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이와 유사한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가치관 유권자 정상회의(Values Voter Summit)'에 참석하여 보수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한 연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우리 미국인은 정부를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In America, we don't wor－ship government. We only worship God)"라고 말했다.

물론 민주주의는 완벽함과는 거리가 먼 정치체제이다. 일찍이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중우정치(mobocracy)'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목적 자체가 최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치체제이니, 무언가 최선의 상태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이 많은 취약한 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문제가 많다고 하여 이를 파기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세우자는 말은, 맹견을 붙들고 있는 목줄이 허술하다고 하여 맹견을 풀어놓자는 말과 같다. 민주주의는 독재와 비이성, 폭력과 야만이라는 맹견을 붙드는 목줄과 같다.

비유컨대, 민주주의는 몽학선생(蒙學先生)에 가깝다. 예수님께서 초림(初臨)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 전해 주신 율법(토라: Torah)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내재되어 꿈틀거리고 있는 죄의 욕망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몽학선생인 율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예수께서 초림하셔서 불완전한 율법을 폐하시고 흠없는 자신의 육체를 허무신 이후에야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다.

비유컨대,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역시 율법처럼 몽학선생과 같다고 주장한다. 비록 불완전하나, 인간의 죄성(罪性)에 의한 독재를 막기 위하여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하는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는 진정한 유토피아에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2. 보수주의

1) 보수주의의 역사

보수주의의 시조는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 (2017)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영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로서, 그가 1790년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이라는 책을 쓴 것이 오늘날 소위 보수주의로 일컫는 정치이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그는 프랑스혁명 이전인 1756년부터 12권의 저술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의 기반이 되어야 할 올바른 정치 철학과 기독교 정치사상을 확립하여 가고 있었다. 달리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부르는 정치이념은 프랑스혁명을 통해 인본주의에 기초한 급진적 정치사상(진보주의)이 유럽 전역에 확산되는 것에 대항하면서 붙여진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흔히 '보수주의'라 불리는 우리말의 의미는 과거의 것을 지킨다는 의미인데, 영국의 민주주의가 프랑스혁명으로 시작된 진보주의보다 100여 년 앞선 것을 감안하면, 보수주의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영국의 권리장전으로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임은 자명하다.

2) 보수주의 이념의 본질

보수주의 이념의 본질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감정이 아닌 이성에 기반한 사고이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걸쳐 나타난 계몽주의 운동은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는데, 계몽주의는 인간 이성의 힘을 믿으며 그 이성을 활용하여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프란시스 쉐퍼(2018)는 그의 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중세 1천여 년간 로마가톨릭에 의해 억압되어있던 인간의 보편적 이성이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북부유럽에서는 종교개혁으로 나타났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남부유럽에서는 인본주의적 르네상스 운동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북부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핵심은 신자 개인들이 이성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것이 종교의 본질적 역할이라는 생각이었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종교개혁자들은 스코틀랜드로 건너가 장로교로 꽃을 피웠다. 이들이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여 주도권을 갖게 된 영국에서 시작된 것이 보수주의적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 역시 보편적 이성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속정치에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였다. 이러한 전통을 현대의 보수주의자들이 이어받는다.

보수주의자들이 가진 이성에 대한 믿음은 감정을 경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이성적으로 무엇이 옳은 일인지 혹은 무엇이 사실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며, 모든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절대다수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수주의자이다. 보수주의자인 버크가 프랑스혁명을 비판한 주된 이유 역시 억압되었다가 폭발적으로 분출한 분노라는 감정에 휘둘려 감당하지 못할 짓을 저지른다는 것이었다.

이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민주주의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존중된다.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공통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성에 기초하여 토론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가진 다양한 생각들은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이 민주주의자이고, 오히려 공동체의 유익과 번영을 가져온다고 민주주의자들은 믿는다. 보편적 이성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보수주의의 두 번째 본질은 신에 대한 존중이다.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의 시작이 된 계몽주의가 신에 대한 거부 내지는 반동으로 귀결되었다고 믿고 있으나 사실은 오해이다. 앞서 말했듯이 종교개혁자들은 이성을 신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으로 발전된 철학 역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뿌리가 고대의 그리스 사상에 기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몽주의의 근간이 된 사상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에게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idea)의 세계는 초월적 존재인 신을 상정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는 이성의 역할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데아를 동경하여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쉽게 말하면 절대 불변의 보편적 진리(이데아)란 신의 세계에만 있는 원형(prototype)에 가까운 것이고 이성을 활용하여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함으로써 현실의 세계에 이데아의 '표상(representation)'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본 것이다.

가장 흔한 오해 중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의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을 억압하는 맹목적 믿음을 강요하는 분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실 때에 비유를 사용하셨다 (마태복음 13:34). 비유라는 것은 비유 대상의 속성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비유에 활용되는 대상의 속성이나 논리구조를 대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요나를 설득하실 때에도 박넝쿨의 비유를 사용하셨다 (요나 4장).

13세기의 스콜라 철학자 중 한 사람인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신의 뜻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 안에 자연법의 내용을 각인하셨다고 설명한다 (이정일, 2007). 이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양심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보수주의자인 초기 영국의 민주주의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불변의 진리를 찾고자 하였으며, 그 진리의 원형(prototype)을 가장 가깝게 모사(模寫)하는 정치체제를 현실의 세계에 세우려 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를 '누가 무엇을 갖는가(who gets what)'의 문제로 오해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본질상 이익의 분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진리가 무엇이며 정의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그래서 영국의 초기 민주주의에서는 평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인류 역사상 (세금을 내는 평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는) 보통선거가 처음 시작된 것은 영국이 아닌 1792년 프랑스에서였다. 영국의 초기 민주주의에서 일반시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흔히 오해되는 것처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의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만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였다.

초기 민주주의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은 운명공동체요 경제적 이익공동체였기 때문에 한 단위로 보아 가장인 남자들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이었다. 가족의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그들의 이익이 과잉 대표(overrepresentation)되면 안되기 때문이었다. 여성을 억압하거나 무시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익이 정의를 훼방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었다.

보수주의의 마지막 세 번째 본질은 현실주의이다. 앞서 민주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새 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기 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정치체제이다. 인간의 죄성과 비이성, 그리고 그로 인한 독재의 횡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본질인 만큼 민주주의는 매우 현실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반공산주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는 유토피아의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유토피아론을 믿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보수주의의 현실주의적 사고방식에는 칼뱅 신학에서의 제1원칙인 전적 타락에 기인한 면이 매우 크다. 세속의 현실에서 유토피아가 불가능한 이유는 제도와 정책을 설계하는 인간의 지혜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아무리 좋은 사회제도를 설계하여도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사회제도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 우리가 죄로 물든 몸을 벗는 것 뿐이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 현실에서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늘 부작용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려 한다. 인간의 타고난 죄성 때문에 어떤 법률이나 제도를 제정하든지 편법을 통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플랜B, 플랜C (contingency plan)를 준비한 다음에야 개혁에 나선다. 보수주의자가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이다.

3) 보수주의와 개인의 자유

보수주의의 사상을 흔히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수주의자들 대부분이 최근 들어 뜨거운 이슈가 된 동성결혼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진보주의자들이 자유의 확장에 더 적극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보수주의자들이 자신들을 자유민주주의자로 자처하는지 의문을 품는다.

이는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원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가지는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억압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규범을 습득함으로써 나타나는 자발적 규제이다. 보수주의는 국가권력에 의한 자유의 강제적 억압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이다.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사회규범을 형성함으로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보수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형태의 '자연법'을 우리 마음에 각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든지 유사한 형태의 사회규범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믿는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어떤 나라는 일부일처제를 용인하고 어떤 나라는 금지하는 것을 보면 사회의 규범이 아주 다른 것 같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관계가 중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예외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보편적 이성, 즉, 양심에 기반하여 유사한 규범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마찬가지로 동성 간 성행위는 인류 역사상 늘 있어 왔지만, 최근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사회의 공통 규범에 의해 용인된 적이 없었다. 기독교 국가뿐 아니라 극동에 위치해 전혀 교류가 없던 우리나라의 유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성 때문에 형성되는 규범의 결과였다.

사실 개인 각자가 가진 양심의 공통부분으로 형성되는 사회규범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강제적 억압을 대체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저명한 독일의 법철학자 게오르그 옐리네크(Georg Jellinek)가 말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유명한 말은 보수주의의 이러한 사상을 대변한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범이 사회 내에 공유될 때에만 이 규범을 어기는 극단적 행위(예: 살인)에 대한 처벌이 정당화되며, 이러한 사회규범이 각 개인에게 분명히 각인되어 있을 때 법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3. 진보주의

1) 진보주의의 역사

흔히 진보주의라고 일컫는 정치이념은 1789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민중혁명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각 개인의 이성을 자유롭게 허용한 영국에서 개신교인들이 사회의 주도권을 잡은 것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에도 100여 년 동안 가톨릭과 연합한 절대왕정이 유지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도 위그노라 불리는 개신교인들이 있었으나, 가톨릭과의 종교분쟁의 결과 대다수가 학살되고 남은 위그노들은 주변의 유럽국가들로 망명하였다.

그래서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영국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점진적으로 신장되고 있는 동안, 프랑스에서는 혁명 직전까지 대다수의 시민이 왕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다. '짐이 곧 법이다'라는 말로 유명한 루이 14세가 1715년까지 권좌에 버티고 있는 동안 시민들은 대규모의 궁전 공사를 위해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있었고, 강력한 폭정의 전통은 프랑스혁명 직전까지 루이 16세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

프랑스의 가톨릭교회는 원래 로마제국 시대부터 왕과 긴밀한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던 데다가, 공동의 적인 신교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왕과의 정치적 협력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당연히 혁명에 성공한 시민들은 교황을 비롯한 가톨릭교회의 지도부를 함께 처형하고 성당 건물을 헐어 그 자리에 '이성의 신전(Temple de la Raison)'을 세웠다. 시민들에게는 가톨릭교회가 왕의 폭정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해 온 존재였기 때문에 신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고, 그 자리를 대체하여 이념적 구심점을 제공한 것은 당연히 루소와 볼테르의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철학사상이었다. 이들이 '신'으로 섬긴 이성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질상 초월적 진리가 될 수가 없었다. 폭정에 억눌리다 폭발한 군중의 분노라는 감정이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것이었다.

루소의 철학을 마르크스가 이어받는다. 마르크스 역시 신의 존재는 물론 신이 인간의 보편적 이성에 심어 놓은 양심을 부정하였다. 더 나아가 인간의 정신 자체를 부정하였다. 유물론자들은 흔히 인간의 '정신'이라 불리는 사고방식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물질의 일종인 뇌세포가 특정한 방향으로 운동하도록 진화된 결과라고 믿는다. 그래서 유물론자는 어김없이 진화론자이다.

이러한 유물론적 사고가 사회를 분석하는 데에 적용된 것이 마르크스의 이론이다. 그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은 절대 진리(예: 이데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한 형태인 생산수단(자본)의 분배구조에 의해 파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당시의 사람들이 자연적 질서라고 믿고 있었던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교환은,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영속화하기 위하여 고안해낸 것뿐이라고 말하며, 이 자연적 질서를 '자본주의'라고 명명했다.[3] 그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공산주의'라는 사회 이념을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은 19세기 시작된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본질상 마르크스의 이론이 약간의 변형을 거쳐 확장된 결과이다 (이형우, 2022). 마르크스가 사회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유물론의 논리구조를 활용하여 '변증법적 유물사관(historical materialism)'을 만들어낸 것처럼,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사회를 계급 간의 갈등 구조로 파악하는 마르크스의 관점을 경제현상에만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현상 전반에 대입한다.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주류를 '문화마르크스주의(cultural marxism)'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문화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가 한 것처럼 사회를 여러 계급으로 나눈다. 성별이 기준이 되면 남성 계급과 여성 계급으로 나뉘고, 인종이 기준이 되면 백인계급과 유색인종 계급으로 나뉘고, 성적지향이 기준이 되면 이성애자계급과 동성애자계급으로 나뉜다. 결국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억압받는 소수 계층의 힘을 결집하여 문화를 장악하면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혁명과 유사한 혁명을 문화의 영역에서 이룰 수 있게 된다.

공산혁명에서 학살과 폭력이 자본가의 자본을 박탈하는 수단이라면, 문화마르크스주의가 계획한 문화혁명에서의 주요 수단은 언어의 장악이다. 현대 좌파의 우상으로 인정되는 미셸 푸코(Paul-Michel Foucault)는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이라는 학문 분야를 개척하여, 레닌이 공산혁명의 방법을 이론화한 것처럼 문화혁명의 방법을 이론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언어에는 소수 계층에 대한 억압 사상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언어의

3) 자본주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마르크스라는 데에는 수많은 학자가 동의한다.

사용을 금지하고 소수 계층에게 유리한 사상이 내포된 언어로 교체하면 문화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치적 전략이 된다.

이러한 언어의 장악은 미국에서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라는 유행어를 등장시켰고,[4] 우리나라에서는 '혐오와 비하'라는 용어로 포장되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자궁'은 아들 자(子)자이므로 성차별적인 반면, '포궁'은 세포 혹은 태반을 의미하는 포(胞)자를 쓰므로 중립적이라는 식이다.[5] 자궁이라는 말은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비하 표현이 된다.

2) 진보주의 이념의 본질

가)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의 불편한 진실

진보주의 이념은 겉으로 보기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념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 호소력을 갖는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진보주의 이념에서의 사회적 약자는 성경에서 직접 언급되는 '고아와 과부'가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마르크스가 고안한 '사회계급(social class)'의 틀 안에서 정의되는 것이 진보주의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원(과거에는 '고아원'으로 불림)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기본적인 직업훈련도 받지 못한 채, '보호종료아동'으로 분류되어 험난한 세상에 내몰린다. 성경에서 도우라고 직접 언급된 고아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킬 예산이 우리나라에 없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여성'계급'과 동성애자'계급'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결집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1년 예산(성인지 예산)의 규모가 2022년 기준 최소 1조4650억이다 (여가부 주장). 이 추산이 최소인 이유는 성인지예산과 동일한 정치적 목적의 예산이 중앙정부 내 타 부처에서도 대규모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어떤 언론 보도에는 숨은 예산까지 합치면 35조에 이른다고 분석하기도 한다.[6]

성경에서 직접 언급된 '과부'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과부는 꽤 많다. 결혼이주 여성 중 이혼하거나 학대를 받아 남편으로부터 분리되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많으며, 청소년 시절 가출하여 윤락여성으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

4) 2021년 6월 16일자 뉴데일리에는, 북한을 탈출하여 도미한 미국 명문 컬럼비아대학생 박연미씨가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하는 미국의 사상 독재가 북한의 반미교육과 같이 느껴진다고 밝힌 폭스뉴스와의 인터뷰가 전해진다.

5)한겨레 2018년 6월 19일 자, "'저출산' 아니라 '저출생', '유모차' 아니라 '유아차'죠"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51209.html)

6) 서울신문 2022년 4월 11일자, "성인지 예산, 국방 예산 수준 증가, 김현숙 여가 장관 후보자 칼럼 논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11500223&wlog_tag3=naver)

생계가 막막하다. 미혼모 역시 마찬가지로 도움이 절실하다. 그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하는 기관은 전국에 약 10개가량 설치되어 운영 중인 여성가족재단이다.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공개' 탭에 있는 재무제표를 확인해보라. 꽤 긴 문서라서 보기 힘들면, 마지막 페이지만 보면 된다. 이들이 우리의 세금을 걷어서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진보주의에 마음이 끌리는 이유

사람들은 왜 진보주의의 이념에 열광하는 것일까? 그것은 진보주의의 이념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인 탐욕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흔히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자의 탐욕이 인간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흔히 금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사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 굳이 힘든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은행에 돈을 넣고 불리면 쉽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자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본가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동네에서 흔히 보는 상점의 주인들은 대부분 영세자영업자이며, 이들은 마르크스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생산수단을 소유하였으므로 자본가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상 자영업자의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청년들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창업을 하게 되면 그들도 자본가가 된다.

이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 종자돈을 모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때로 먹는 것까지 아낀다. 그렇게 모은 돈에 은행 대출을 더하여 어렵게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 다수의 자본가이다. 아르바이트생은 가게가 망해도 다른 곳에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지만, 이들 영세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을 늘 안고 산다. 그런데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착취(exploitation)'하는 존재이다. 이 착취개념을 설명하는 이론이 '잉여가치론'인데, 잉여가치론은 자본가가 생산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를 사는 우리 중 아무도 잉여가치론에 논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이론에 열광하는 것일까? 인간 본성에 내재된 죄성인 탐욕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늘 돈이 부족함을 느낀다. 먹고 사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도 돈은 늘 '더 있으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상대적 빈곤'을 느낀다. 그런데 이 상대적 빈곤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다. 이 경우 빈곤이라는 표현은 부적합하다. 그것은 탐욕이다.

이러한 '탐욕'을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마르크스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낸다. '네가 빈곤한 이유는 바로 저 자본가 때문'이라는 말이 잉여가치론이라는 현학적 용어로 포장된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본가의 것을 폭력으로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나의 것을 '착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포괄적 성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교육 역시 진보주의 정치인들에 의하여 계획되고 시행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성교육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성욕을 마음껏 즐길 권리인 것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성교육의 이면에는 오스트리아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빌헬름 라이히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마르크스의 이념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만든 '성해방'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정훈, 2018). 쉽게 설명하면, 인간의 성윤리와 도덕이 지배층인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영속화하기 위하여 만든 사회적 억압 장치라고 이 이론에서는 주장한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성욕은 매우 강한 욕구이다. 우리 중 대부분은 성욕을 원할 때마다 마음껏 충족시키고 싶어한다. 그러나 사회의 규범 때문에 우리는 모두 성욕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많은 우크라이나 여성이 성폭력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런데 이는 비단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만 일어난 비극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거의 모든 전쟁에서 항상 일어났던 사건이다. 굳이 전쟁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선진국에서도 자연 재난 등으로 치안의 공백이 잠시 있게 되면 인간의 성욕으로 인한 범죄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7]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항상 억제되고 있던 성욕을 마음껏 발산하라고 하면 열광한다. 그 성욕을 억제하는 것이 사회지배계층의 억압이라는 논리를 '이론적' 용어를 사용하여 현학적으로 포장하면 그럴듯하게 들린다.[8] 그런데 이러한 방종이 논리적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속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성욕을 마음껏 충족시키고 싶은 동기가 사람들의 이성적 상황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이를 '동기화된 추론 (motivated reasoning)'이라고 한다.[9]

조금만 이성과 양심을 활용하여 고민해보면, 비합리적인 생각임을 쉽게 깨닫게 된다. 나의 성욕을 마음껏 충족시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찬성할 것이지만, 나의 어린 자녀들에게 '성해방'을 가르치라고 하면 찬성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여 자포자기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자녀만큼은 보호하고 싶을 것이다.

3) 진보주의와 개인의 자유

---

7) 한국일보, 2017년 8월 29일자 "[기억할 오늘] 허리케인 카트리나(8.29)"

8) 이런 허황된 이론들 때문에 미국에서는 philosobabble(철학적 용어를 사용한 헛소리), psychobabble(심리학 용어를 사용한 헛소리)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다. 이런 이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에서 보장한 사상과 학문의 자유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관용에 기생하여 성장한 이 허황된 이론들이 이제는 반대로 민주주의의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말살하려 한다.

9) 동기화된 추론은 개인의 감정적 편견으로 인해 객관적 증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바에 의해 행동을 정당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보수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강제적 억압을 경계하는 반면, 사회규범에 의한 자발적 규제를 통해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진보주의에서는 이와 정반대이다. 국가권력은 개인의 자유를 마음대로 압제할 수 있지만, 사회의 규범이 사람들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폭력적 억압이 된다.

국가권력의 강제적 억압이 정당화되는 것은 루소의 사상에서의 '일반의지'라는 개념에 의해서이다. 루소는 '일반의지'가 자연 상태로 돌아간 인간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반의지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으로 여금 '자유하도록 강제하는 것(forced to be free)'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다.[10]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체제는 어김없이 강력한 국가권력의 억압적 통제를 초래했다. 우리가 흔히 극우로 오해하는 독일의 나치(Nazi) 역시 정식명칭이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의 본질에 주목하여 하이에크는 사회주의를 전체주의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자유로운 개인을 중세시대의 농노처럼 만드는 길이라고 비판하였다 (하이에크, 2018). 마르크스 역시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독재'를 정의로운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과거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 치하에서 학살되고 숙청된 사람의 수는 나치가 학살한 전체 사람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다.

반면, 앞서 설명한 빌헬름 라이히, 미쉘 푸코 등의 학자들이 세운 이론에 기반하여 사회규범에 의한 개인의 자발적 행동 규제는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금지된다. 인간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규제하는 사회적 기제가 사라진 곳에서 온갖 방종이 난무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결론

1) 길잃은 대한민국 보수주의

우리나라의 보수주의는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박정희를 보수의 아이콘으로 오해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정치사적 맥락 때문이다. 박정희가 추진한 경제개발정책은 소수의 기업을 국가가 육성하는 성격의 것으로, 자연적 질서를 추구하는 자유시장경제에 반대되는 정책들이었다. 그가 언론과 출판, 그리고 학문의 자유를 억압한 것 역시 보수주의 이념으로 정당화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의 정신세계는 뒤죽박죽이다. 자유시장경제

10) 일반의지가 자연 상태에서 파생된 개념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라는 개념이 허상이 되면 일반의지는 저절로 허상이 된다. 자연 상태라는 말은 루소와 이념적 색채가 유사한 볼테르조차 "너의 책을 읽는 독자는 네 발로 걷고 싶어질 것"이라고 조롱하였다.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일 것이라는 조롱이다.

를 부르짖는 이들이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찬양하고, 정부의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부르짖는 이들이 박정희의 독재를 미화한다.

우리가 박정희의 정신적 유산(legacy)에 머물러있는 한 인본주의적 진보주의 사상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다. 박정희는 보수주의자가 진보주의자와의 정치적 논쟁에서 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킬레스건이 된다. 그래서 진보주의자와의 논쟁에서 늘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고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급기야 우리나라의 보수주의를 표방해왔던 제1정당에서는 '탈이념'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보수주의 정당의 당수조차도 보수주의 이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정 보수주의를 이해한다면 누구나 따르는 것이 보수주의이고, 진정 진보주의를 이해한다면 허튼소리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보주의이다.

대한민국 보수주의의 개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부는 새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주의의 모습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해야 할 원래의 모습이다.

앞서 설명한 보수주의적 사상을 표방한 것은 박정희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다. 이승만의 사상은 대한민국 보수주의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 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늑대와 양치기 소년

어린 시절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라는 제목의 이솝우화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이 있었다. 늑대에게 희생된 양들이 대체 누구의 양일까 하는 의문이었다. 이야기의 줄거리를 들어보면 원래 그 양이 양치기 소년의 소유였던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결론적 교훈은 거짓말하면 손해를 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여전히 남는다. 그 양들이 정말 양치기 소년의 소유였다면, 왜 마을 사람들은 두 번이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업을 팽개치고 달려왔을까? 상황에 맞게 이야기의 전제를 조금 바꾸어보자. 만일 그 양들이 마을 사람들의 공동소유였다면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일까? 그렇다면 아마도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교훈은 '내 것을 남에게 맡기지 말자' 혹은 '양치기 소년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내 소유를 잃지 않게 잘 관리하자'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다. 성경에 기반한 보수주의적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가권력의 강압적 폭정을 옹호하는 진보주의 정권이 권력을 잡게 될 때, 우리 중 대부분은,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삶과 신앙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주의를 자처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미움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충분히 이해될 만하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 여러 고초를

겪었던 분들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소위 진보주의를 자처하는 정치집단이 신이 주신 양심과 이성에 근거하여 본능적으로 형성된 사회규범을 해체하고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생명과 같은 신앙생활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보수주의로 오해되는 박정희에 대한 상처 때문에 진보주의를 지지한다면, 우리의 미래세대는 늑대들에게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

3) 박정희와 바사 왕 고레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굳이 '섭리주의(providentialism)'[11]이라는 신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재앙인 것처럼 보이는 역사적 사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독교인이라면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은 심지어 악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잠언 16:4).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겪을 고초를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셨다.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들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씨족(Clan)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가진 민족국가로 발전하는 것은, 애굽이라는 당시 강대국의 보호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약소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위협으로 느낀 주변 국가들이 끊임없이 침략하여 굴복시키려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이와 같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박정희의 독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신앙인이 아닌 바사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박정희를 사용하셨다. 민주주의 역시 인큐베이팅의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치학자들은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건전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Lipset, 1959).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문제이지, 누가 무엇을 갖는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생계의 문제에 얽매여 있으면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된다. 어차피 아무 가진 것이 없으면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공산주의의 거짓말에 속기도 쉽다.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을 국가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로 인구 규모를 성장시켜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의 보호 아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몽학선생인 민주주의를 시행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셨다.

---

11) 섭리주의란 지구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고 조절된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이는 로마서 8장 28절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하여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탐탁지 않게 여기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역시 박정희의 향수에 젖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보수주의, 기독교적 민주주의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에드먼드 버크 저, 이태숙 역. (2017).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한길사

윤영휘. (2014). 영국 노예무역 폐지운동 연구의 역사: 회고, 한계, 발전 방향. 역사와 담론, 70, 107-136.

이정일. (2007). 토마스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연법 비교. 범한철학. 45: 131-161.

이정훈. (2018). 교회해체와 젠더이데올로기. 킹덤북스.

이형우. (2022). 성경 속의 민주주의. 기독교문서선교회(CLC).

전광. (2009).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생명의 말씀사.

프란시스 쉐퍼 저, 김기찬 역. (2018).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서구 사상과 문화의 부흥과 쇠퇴. 생명의 말씀사.

하이에크 저, 김이석 역. (2018). 노예의 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진실. 자유기업원.

Lipset, (1959) Some Social Requisite of Democr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1): 69-105.

Seymour Drescher, (1977). *Econocide, British Slavery in the Era of Abolition.*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3-23.